

#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슈퍼비전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이병록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Supervision and Job Commitment of Workers in Leisure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

Byoung-Rock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슈퍼비전과 직무몰입의 관계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충남과 대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15개소의 종사자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는 AMOS/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부트스트랩검정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슈퍼비전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효능감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감안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종사자들에 대한 슈퍼비전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긍정적 의사소통 체계의 확립과 수평적 조직문화의 구축, 증가된 비대면 상황에 적합한 슈퍼비전의 제공, 전문적인 슈퍼비전 제공을 위해 슈퍼바이저에 대한 교육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 둘째, 종사자들의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관장의 리더십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성취감을 높이는 프로그램들의 개발, 종사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지원, 높은 비정규직 비율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ion and job commitment and to test the mediation effect of the self-efficacy of workers in leisure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 A survey of 271 workers at 15 centers in Chungnam and Daejeon was conducted. The analysis methods utilized were frequency, correlation, reliabil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bootstrap tests using the AMOS/SPSS 18.0 softw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upervision affected job commitment and self-efficacy played a role as a parameter.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ways to improve the job commitment of the workers. First, to ensure smooth supervision for the work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orizontal organizational culture, provide supervision suitable for increased non-face-to-face situations, and provide supervision education for the supervisor. Second, to improve workers' self-effica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seminate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the leadership of the head of the agency, develop programs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e employees and their sense of accomplishment, provide time and economic support for the self-development of the employees, and reduce the ratio of highly irregular workers.

**Keywords** : Leisure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 Workers, Supervision, Job Commitment, Self-efficacy

---

\*Corresponding Author : Byoung-Rock Lee(Konyang Univ.)

email: brlee@konyang.ac.kr

Received February 15, 2022

Accepted May 6, 2022

Revised March 10, 2022

Published May 31, 2022

## 1. 서론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주로 평균수명의 증가에 의한 결과로서 노인들의 여가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1].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노인들에게 건강증진,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준다[2]. 따라서 노인의 활동적인 여가활동이 노인복지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3]. 그러나 한국 노인들의 여가활동실태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노인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에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들에게 각종 상담과 건강증진 활동을 비롯하여 교양과 오락 등의 여가서비스를 제공한다[4]. 노인들의 바깥직한 여가활동과 행복한 노후생활의 영위에 있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인들과의 대면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할이 핵심적이다[5].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방역업무의 추가, 후원금과 자원봉사자의 감소로 인한 사업운영의 어려움, 비대면서비스의 개발, 업무진행시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의 증가 등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6].

코로나-19로 인해 열악해진 근무환경은 종사자들의 직무몰입 수준을 감소시킨다[7]. 직무몰입의 감소는 업무열의의 감소, 조직발전을 위한 노력의 감소, 업무성과의 감소를 가져와 노인여가서비스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8]. 종사자들의 직무몰입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일부 진행된 노인복지 종사자들의 직무몰입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영향요인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그리고 우울[6] 등에 국한되고 있다. 한편,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슈퍼비전이 직무몰입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적절한 슈퍼비전은 종사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직무만족 수준이 향상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업무태도를 가진 종사자들은 담당업무의 몰입도가 증가할 것이다[9]. 노인복지분야에서 슈퍼비전과 직무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을 비롯하여 대학직원과 병원종사자들을 조사한 배병룡의 연구[10]에서 슈퍼비전과 직무몰입의 영향관계가 증명되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슈퍼비전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이 매개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슈퍼비전은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지도, 지지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자아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1]. 이명희와 박재우의 연구[12]에서 전국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슈퍼비전의 자아효능감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바 있다. 성희자의 연구[13]는 대구와 경북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슈퍼비전과 자아효능감의 영향관계를 실증하였다. 반대로 자아효능감이 감소된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한 열의가 감소하고 이직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담당업무에 대한 몰입도는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권상민과 권말숙의 연구[15]에서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자아효능감의 직무몰입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전순득과 조성제의 연구[16]의 경우에는 예술심리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자아효능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슈퍼비전과 직무몰입의 관계 및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슈퍼비전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종사자들의 슈퍼비전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이 매개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슈퍼비전과 직무몰입의 관계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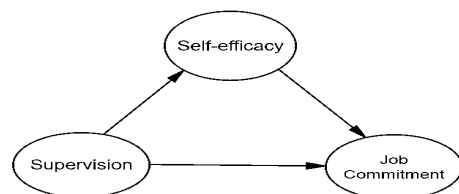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2 조사의 대상과 과정

충남과 대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15개소에서 종사하

는 인력 2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의 실시 이전에 5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제시된 의견들을 설문문항 수정에 반영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를 허가한 노인여가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1월 3일에 시작되어 20일에 종료되었다.

### 2.3 측정도구

독립변수인 슈퍼비전을 측정하기 위해 남현주의 연구[17]를 참조하였다. 슈퍼비전은 종사자들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활동이다. 슈퍼비전은 지지적, 교육적, 행정적 슈퍼비전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된다. 하위요인별 각 5문항씩을 선정한 이후에 각 하위요인별 문항에 대한 응답값들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그렇지않다(①)~매우그렇다(⑤)’ 리커트5점척도를 설정하였으며, 모든 변수들에 대해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alpha$ )는 지지적 슈퍼비전 .944, 교육적 슈퍼비전 .956, 행정적 슈퍼비전 .958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아효능감은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측정도구는 김혜숙의 연구[18]를 참조하여 6문항을 제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alpha$ )는 .888로 산출되었다.

종속변수인 직무몰입은 종사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측정도구는 박희원[19]의 연구를 참조하여 6문항을 선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alpha$ )는 .922로 나타났다.

### 2.4 자료분석방법

수집한 설문자료는 SPSS/AMO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통해 자료의 정규성과 신뢰도 및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보편적으로 측정모형의 적합성 기준이 되는 CFI, TLI, IFI, NFI 등의 값이 1.0 미만이고 .90 이상인 경우에는 분석에 문제가 없다. RMSEA는 .10 이하이면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확인한 최종모형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슈퍼비전과 직무몰입의 관계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에 위해 부트스트랩검정을 활용하였고 간접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에서의 통계유의성을 살펴본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일반적 특성의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 Table 1에 제시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78	28.8
	Female	193	71.2
License	Social Worker	223	84.8
	Physical Therapist	4	1.5
	Nutritionist	12	4.6
	Unqualified	17	6.5
	etc.	7	2.7
Employment	Permanent	137	50.9
	Temporary	132	49.1

### 3.2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시킬 변수들의 평균,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한 내용이 Table 2에 제시되었다. 정규분포상의 절대값 기준으로 왜도, 첨도가 각각 3과 8 미만으로 제시되는데, 본 연구의 왜도는 -.776~-.079, 첨도는 -.270~1.195의 분포로 나타나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Principal Variables

Variable		Mean	Skewness	Kurtosis
Supervision	SV1	19.44	-.261	.035
	SV2	19.68	-.776	1.151
	SV3	19.11	-.615	.783
Self-efficacy	SE1	3.82	-.616	1.131
	SE2	3.60	-.458	.072
	SE3	3.68	-.284	.070
	SE4	3.79	-.443	.555
	SE5	3.81	-.577	1.195
	SE6	3.82	-.381	.673
Job Commitment	JC1	3.55	-.354	.104
	JC2	3.84	-.412	.689
	JC3	3.72	-.097	-.270
	JC4	3.71	-.402	.628
	JC5	3.59	-.446	.289
	JC6	3.83	-.430	.544

Table 3에 제시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슈퍼비전과 자아효능감의  $r=.175(p<.01)$ , 슈퍼비전과 직무몰입의  $r=.442(p<.001)$ , 자아효능감과 직무몰입의  $r=.528$ 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값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0.7 미만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ariable	Supervision	Self-efficacy	Job Commitment
Supervision	1		
Self-efficacy	.175**	1	1
Job Commitment	.442***	.528***	1

\*\*  $p<.01$ , \*\*\*  $p<.001$

### 3.3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Table 4의 측정모형의 분석결과는 종사자들의 슈퍼비전-자아효능감-직무몰입의 측정모형 적합도  $\chi^2=282.939(df=87,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절대적합지수인 RMSEA=.091, 증분적합지수인 CFI=.937, TLI=.924, IFI=.937, NFI=.912로 구조모형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Measurement Model Analysis

Variable		Estimate		SE	CR
		B	$\beta$		
Supervision	→ SV1	.866	.944	.031	28.366***
	→ SV2	.949	.944	.033	28.353***
	→ SV3	1.000	.921		
Self-efficacy	→ SE1	1.000	.740		
	→ SE2	1.186	.804	.091	12.964***
	→ SE3	1.161	.779	.093	12.548***
	→ SE4	1.071	.740	.090	11.896***
	→ SE5	1.021	.679	.094	10.866***
	→ SE6	1.047	.794	.082	12.798***
Job Commitment	→ JC1	1.000	.840		
	→ JC2	.874	.833	.052	16.860***
	→ JC3	.841	.774	.056	15.044***
	→ JC4	.978	.879	.053	18.382***
	→ JC5	1.059	.837	.062	16.965***
	→ JC6	.725	.737	.052	14.007***

$\chi^2=282.939(df=87, p<.001)$ , RMSEA=.091, CFI=.937, TLI=.924, IFI=.937, NFI=.912, \*\*\*  $p<.001$

### 3.4 구조모형과 매개효과의 분석

Fig. 2와 Table 5에 구조모형과 매개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는 첫째,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슈퍼비전이 자아효능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eta=.191, p<.01$ ). 둘째, 종사자들의 슈퍼비전이 조직몰입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eta=.366, p<.001$ ). 셋째, 종사자들의 자아효능감이 직무몰입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eta=.493, p<.001$ ).

부스트랩검증을 통해 산출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하한값(.005)과 상한값(.035) 사이에 0이 없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슈퍼비전이 자아효능감을 매개하여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총효과가 .461, 직접효과 .366, 간접효과 .094( $p<.01$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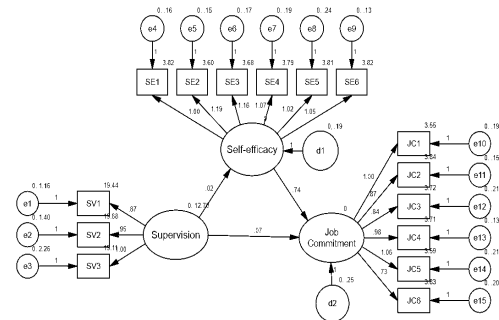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Table 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ath	Estimate		SE	CR	
	B	$\beta$			
Supervision→ Self-efficacy	.024	.191	.088	2.904**	
Supervision→ Job Commitment	.069	.366	.010	6.747***	
Self-efficacy→ Job Commitment	.739	.493	.094	7.825***	
Path	NC	SE	95% CI		
			Lower	Upper	
Supervision→ Self-efficacy→ Job Commitment	.018	.008	.005 .035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461	.366	.094**

\*\*  $p<.01$ , \*\*\*  $p<.001$

## 5. 결론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종사자들의 슈퍼비전이 직무몰입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eta = .366$ ). 이 분석결과는 적절한 슈퍼비전이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심리적 안정감, 직무몰입을 향상시켜 직무몰입을 증가시킨다는 신문영과 박종두[9]의 논의를 입증하고 있다. 둘째, 종사자들의 슈퍼비전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beta = .094$ ). 이 분석결과는 종사자들에 대한 슈퍼비전이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켜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 지인구와 주영아[11]의 연구와 자아효능감이 감소하면 업무열의가 감소하고 이직의도가 증가하여 직무몰입이 감소된다고 주장한 신준옥[14]의 연구와 동일하다.

분석결과를 참고로 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몰입을 증진시킬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하기 위해 첫째, 슈퍼비전의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의사소통체계의 확립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 둘째,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관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슈퍼비전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21]. 셋째, 현재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에 대한 교육이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보다 전문적인 슈퍼비전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22].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첫째, 기관장의 리더십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23]. 둘째,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24]. 셋째, 종사자들의 업무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계발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25]. 넷째,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직무몰입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몰입과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종사자들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무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현장대책들을 개발하는 연구들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Y. M. Chung, Y. S. Kim, *The Effect of Leisure Life of Early Older People on the Satisfaction of Life by Mediating Social Relation*,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59, pp.1-21, 2021.
- [2] H. R. Choi, *The Effect of Community Environment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6, No. 4, pp.81-106, 2021.  
DOI: <https://doi.org/10.21194/kjgsw.76.4.202112.81>
- [3] W. G. Lim,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th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s Lif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Vol. 6, No. 2, pp.27-51, 2020.  
DOI: <https://doi.org/10.31748/KSEG.2020.6.2.27>
- [4] S. H. Hong, S. E. Kim, *Constraints to Participation in Senior Welfare Cent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6, No. 4, pp.125-156, 2021.  
DOI: <https://dx.doi.org/10.15709/hswr.2016.36.4.125>
- [5] E. A. Kim, M. K. Youn, *A Study on Effects of CEOs Ethical Leadership on Member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Senior Welfare Center*,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3, No. 4, pp.249-280, 2018.
- [6] J. Y. Lee, K. H. Youn,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lderly Welfare Center Workers in Corona-19 Period*,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2, No. 1, pp.755-770, 2021.  
DOI: <https://dx.doi.org/10.22143/HSS21.12.1.53>
- [7] J. S. Jang, S. J. Jo, *Environments and Occupational Ethics in Care Workers on Job Commitment and Job Attitude*, Korean Journal of 21st Century Social Welfare, Vol. 14, No. 1, pp.51-70, 2017.
- [8] Y. J. Lee, J. H. Park, *The Influence of Social Welfare Worker's Supervisor Support and Organizational Support on Job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Volunteerism, Vol. 1, pp.57-77, 2020.
- [9] M. Y. Shin, J. D. Park, *The Influence of Social Workers'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upervis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7, pp.98-107, 2020.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7.098>
- [10] B. R. Bae,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ants of Job Involvement*,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 26, No. 3, pp.23-48, 2012.  
DOI: <https://doi.org/10.18398/kilgas.2012.26.3.23>
- [11] I. K. Ji, Y. A. Ju, *The Relationship Between Novice Counselor'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Counselor Self-Efficacy : The Moderating Effect of Supervision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 Educational Therapist, Vol. 11, No. 1, pp.93-113, 2019.
- [12] M. H. Lee, J. W. Park, *The Effects of Counselor's Traumatic Experience on Counselor's Self-Efficacy: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Focused of Mentalization, Educational Analysis and Supervis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Vol. 11, No. 1, pp.63-79, 2019.  
DOI: <https://doi.org/10.22831/kap.2019.11.1.004>
- [13] H. J. Sung, *The Influence of Supervision on Social Workers' Self-Efficac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22, pp.73-91, 2007.
- [14] J. O. Shin,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Disability Assistance Worker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Engagement*,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 18, No. 2, pp.59-67, 2020.  
DOI: <https://doi.org/10.22678/jic.2020.18.2.059>
- [15] S. M. Kwon, M. S. Kwon, *Effect of Nurse's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n Job Involv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4, pp.284-292,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4.284>
- [16] S. D. Joun, S. J. Cho, *The Effect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Self-Efficacy on Job Involv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8, pp.471-477,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8.471>
- [17] H. J. Nam,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hildcare Center Nurturers' Job Stres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Ph.D dissertation, Hyupsung University of Social Welfare, Nonsan, Korea, pp.196-198, 2021.
- [18] H. S. Kim, *The Effect of Team Leader's Coaching Leadership on Customer Service Behavior in the Elderly Welfare Center Work Settings*, Ph.D dissertation, Seoul Hanyoung Universit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p.113, 2021.
- [19] H. W. Park, *Effects of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Social Exchange on Innovative Behavior of employees of Public Organizations*,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Seoul, Korea, p.170, 2020.
- [20] J. C. Jin, S. K. Yoo, *Influential Factors of Case Manager's Network Activities : Focusing on the Impact of Supervision Relationship*, Research of Case Management, Vol. 11, No. 1, pp.1-23, 2020.
- [21] J. S. Ahn, H. Y. Kim, K. N. Eum,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Supervisor Training Courses in Social Work*, Supervision & Practice Research, Vol. 5, pp.99-124, 2020.
- [22] Y. L. Cho, S. C. Choi, J. S. Lee, *The Study of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Value of Work and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er :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Supervi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61, pp.45-78, 2019.  
DOI: <https://doi.org/10.17997/SWRV.61.1.2>
- [23] O. S. Lee, H. G. Lee, *The Effect of Leadership Types of the Directors of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ccording to Self-Efficacy*, National Social Welfare Research, Vol. 14, pp.131-174, 2020.
- [24] J. D. Park, Y. C. Jung, *The Effect of the Level of Ethical Awareness on Their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 Self-efficacy and Supervision Controlled Mediating Effect*,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 35, pp.77-101, 2020.  
DOI: <http://dx.doi.org/10.22589/kaocm.2020.35.77>
- [25] K. H. Kim,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in Social Worker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12, pp.897-915,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12.080>

이 병 록(Byoung-Rock Lee)

[정회원]



- 1998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05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01년 9월 ~ 2006년 2월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인력 등